

1 21세기를 대비한 어항개발

쾌적한 휴식·교류의 공간 조성

다목적 어항으로 종합개발

앞으로는 우리 어촌지역에 있어서도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질 높은 생활 환경의 조성을 통한 풍요로운 생산,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어항의 개발, 정비에 있어서도 광역적인 관점에 있어서 사람들이 풍요롭고 여유를 실감할 수 있으며, 후계인력이 정착할 수 있는 질 높은 생활공간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 남 형 / 제주대학교 교수

서 론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공업화 정책과 전략산업위주로 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추진에 의해 산업간, 지역간 격차는 물론 도·농·어간의 소득과 생활격차를 유발시켰다. 따라서 많은 농어촌 인구가 향도이촌하게 되어 농어촌은 노동력의

고령화, 부녀화로 생산에 많은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WTO체제 아래에서의 시장개방과 신행양질서는 우리나라의 수산업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있다.

한편, 우리나라 어촌의 현실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어촌개발을 위한 정책자체가 없이 어장개발, 어선확충

등 생산증대를 위한 정책이 중심을 이루어 왔다. 1980년대 중반이후 몇개의 시·군에서 수산개발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기 시작하였으나, 이 역시 어장개발, 어선 확충 등 생산능력증대에 중심을 두었으며,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어촌계를 대상으로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을 해왔으나 지원 규모

가 미흡하여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 결과, 어촌 지역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생활이 열악해졌으며, 소득창출의 기회가 제약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급격한 인구의 타지역 유출로 개발사업의 추진 자체가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현재 우리나라 수산업은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부분에 있어서는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강화를, 어촌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개발을 통한 생활환경개선과 어업의 소득원 개발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의 어항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어항이 어업생산을 지원하는 외에 어촌지역 주민들의 생활근거지이며, 도시주민들에게는 쾌적한 휴식, 휴양공간을 제공하는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항 개발에 있어서는 절대투자액 자체가 부족하여, 만족할 만한 규모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매년 막대한 재산 및 인명상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그나마 어업 지원 기능에만 치중해 온 결과, 앞으로 예상되는 국내의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어항을 단순히 어업을 지원하는 하나의 물적시설로만 인식해 왔을 뿐만 아니라 어항의 기능 및 바람직한 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연구나 정책방향의 제시가 없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000년대의 어항개발 목표

어항의 기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산업이 가장 매력있는 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이러한 기능의 강화에 어항개발의 제1목표가 두어져야 할 것이다. 어항을 개발함에 있어서 어업종사자들이 쾌적한 환경아래에서 작업을 하고, 효율적인 어업 활동이 가능해야 하며, 생산된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게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하겠다.

또한 어항은 어촌지역 주민들의 생산 및 생활 중심지인 동시에 도시지역 주민들에게는 휴식·휴양공간이기도 하므로,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한 기능의 강화도 어항개발의 중요

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매력있는 산업으로서의 수산업 실현

① 안전하고 사용하기 쉬운 어항의 개발

수산업이 매력있는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어업 종사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어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항의 안전성을 제고하되, 특히 청장년의 어업자, 여성 및 고령의 어업자를 배려한 아름답고 안전하며 사용하기 쉬운 어항을 건설함으로써 노동시간 단축과 계획적인 어업 생산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수산업은 기본적으로 상당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수산업에 계속 종사하지 않을 것인바, 안전한 어항의 개발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상당히 완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방파제, 정박지, 계류시설을 보강하여 황천시에도 어선을 안전하게 계류할 수 있는 어업의 개발, 정비가 필요하며, 안전하고 사용하기 쉬우며, 생력화할 수 있는 어항시설의 정비와 여성이나 노령어업자도 쉽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

② 지역 특성에 적합한 어항 기능 확충

수산업에 매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어항기능의 확충이 필요하다. 즉 현재 어항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어항으로부터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는 대규모 어항까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각각 지역 특성을 살린 어항 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업실태를 근거로하여 각 어항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기능이나 특성을 명확하게 한 다음, 각 어항이 필요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그리고 중심어항에 대한 중점적 투자에 있어서는 지역정책적인 관점에서 그 지역의 재정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고, 어항간의 상호 연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도로 주차장 등도 정비해 나가야 한다.

③ 자원관리형 어업의 추진

과도한 어획으로 인해 어업 자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 아래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양질의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원관리형 어업체제로 나아가야 하며, 앞으로는 어항의 개발에 있어서도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응한 개발 및 정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기르는 어업의 지원을 위해 연안어장, 종묘생산 및 육성시설 등의 정비와 이와 연계된 어항개발, 정비가 필요하며, 자원관리형 어업의 추진을 위한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수산 관계정보 발신기로서 어항을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다.

④ 풍요로운 식생활을 지원하는 어항의 정비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의 증가 등으로 소비자의 기호가 점차 고급화, 다양화되고 있으며, 수산물의 가공에 있어서는 원료의 안정적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수산물의 가공에 있어서는 원료의 안정적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수산물의 유통·가공의 변화에 대응한 어항의 정비를 위해서는 활어유통, 택배를 통한 산지 직송, 유통 상품 변화 등 새로운 유통 형태에 대응한 시설, 부지확보가 필요하며, 수산가공 원료 확보의 관점에서는 대형 운반선의 접근이 가능한 어항 개발, 정비가 필요하다.

풍요로운 생산·생활환경의 조성

① 지역특성에 적합한 질 높

은 생활공간 창조

앞으로는 우리 어촌지역에 있어서도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질 높은 생활 환경의 조성을 통한 풍요로운 생산,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어항의 개발, 정비에 있어서도 광역적인 관점에 있어서 사람들이 풍요롭고 여유를 실감할 수 있으며, 후계인력이 정착할 수 있는 질 높은 생활공간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생활의 안정과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녹지, 공원 등 공공부지를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어항어촌에 있어서는 문화적·역사적 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생활공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로의 정비, 정보 네트워크화를 통해 주변 어촌 지역과의 유기적인 관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② 환경조화형 어항어촌 개발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호한 자연환경을 갖춘 어항 지역이 장래에도 계속 풍요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항어촌의 정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환경보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어항정비에 있어

각종 어패류의 서식환경조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하고, 생활환경 개선과 생산성 높은 어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배수시설, 어업 폐기물 처리시설, 정화시설의 정비 등 자연환경에 조화를 이루는 어항어촌을 건설해야 하며 사질해안의 어항개발에 있어서는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을 더욱 고려해야 한다.

쾌적한 휴식·교류공간의 조성

- ① 어촌지역의 복합기능을 고려한 여가, 교육공간의 조성

어촌지역이 쾌적한 생산·생활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지역이 가지는 복합적 기능을 고려한 여가 및 교육공간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즉 국민들의 여가시간의 증대에 대응하여 양호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어촌지역을 매력 있는 곳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대환경을 정비하는 동시에 해양교육공간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어촌지역의 활성화 관점에서 각 어항어촌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해양레크레이션 기반을 조성하여 어업종사자가 부담없이 만날 수 있

는 장소 또는 어업에 관한 기술, 시스템 등의 연구나 회의를 개최하는 장소로부터 국제 교류센터에 이르기까지 교류, 휴식, 이벤트 장소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시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어업이나 바다의 역할을 알리는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바다를 이용하는 자의 의무를 인식시키기 위한 자원 관리나 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 계몽의 장이나 어류를 보고 몸으로 느끼는 장소로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 ② 활력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핵으로서의 어촌지역 개발

도시에 대한 과도한 인구집중을 예방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어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산업의 진흥 및 지역수요와의 조화를 기초로하여 어업을 주체로 하면서 가공업 유선업, 관광업 등 바다와 관련한 사업의 장소나 취업기회를 많은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한 조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어항어촌이 지역개발의 핵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항관리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 등 각 어항의 입지 조건에

부응하는 쾌적한 관리운영체제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항개발의 기본방향

앞으로는 다기능을 가진 어항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정어항에 대한 완공률이 41.5%에 불과하므로 미완공 지정어항을 조기에 완공해 나가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본시설 외에 기능시설 및 복지시설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가능하면 이들 시설을 동시에 개발하되 이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 기본시설부터 개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능시설에 있어서는 어업생산 및 어업 부가가치 제고를 실현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 나가되 지역여건 및 개발 잠재력을 고려하여 다양한 규모나 구조를 갖추으로써 어촌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항구역을 어촌지역 주민들의 생활 중심으로 개발해 나가되 이를 위해서는 교육·문화·의료시설의 확충 및 마을 정비를 통하여 어촌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배후

지에는 수산물 가공단지의 건설 등을 통해서 어업의 소득원을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0년대의 새로운 어항개발 모형

어촌지역의 개발환경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 어촌지역은 도시에 비하여 산업, 교육, 의료, 도로, 교통망, 주거조건 등 모든 조건에서 불리하다. 대부분의 어촌지역은 2·3차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여 지역 주민들은 1차산업인 농림수산업에 고용과 소득을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 결과 어업의 소득창출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어촌 지역의 현황은 영세한 소득, 취약한 기반시설, 열악한 생활환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같은 어촌지역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UR타결에 따른 정부의 대대적인 농림수산업 진흥정책,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 소득증대에 따른 국민들의 해양자원에 대한 수요증대 등 어촌지역의 개발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따라서, 2000년대 우리나라

어촌지역이 당면할 대내외적인 변화를 감안할 때, 향후의 어촌지역의 개발은 어떠한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2000년대의 어촌지역은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하며, 어항어촌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지역특성에 적합하면서 질 높은 생활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하며, 전반적인 소득증대에 따른 국민생활 패턴의 변화에 부응하여 양호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어항어촌지역을 매력적이고 쾌적한 휴식·교류공간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2000년대의 어촌지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어항개발은 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어촌 유형별로 상이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2000년대 어촌지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어항개발 모형으로 '복합도시형 어항'과 '광역어촌 정주권형 어항'의 개발모형을 제시한다.

복합도시형 어항개발

수산업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배후지역이 넓으며 어느 정도의 기반시

설 및 인구규모를 갖추고 있는 도시근교형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모형이다. 이들 어촌에 대해서는 어업 및 관련시설을 대폭적으로 확충 정비하고, 새로운 사업적 기능과 관련기능을 보강함으로써 수산업을 핵으로 하는 산업진흥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지방중핵도시 내지 지역중심센터로 개발한다.

복합도시형 어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항을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반시설들을 배치한다.

첫째는 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이다. 이것에는 수산물 가공단지, 수산기술 연구센터, 수산물 유통센터 등이 있다.

둘째는 지역종합정보센터이다. 종합정보센터는 어장정보, 수산물 유통정보, 수산물 소비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어민이나 유통업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지역 수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셋째는 어항의 워터프론트(water front)를 활용한 제반시설이다. 어항 주변의 노후화된 기존 건물들을 정비하여 재개발 부지를 창출하고, 여기에 공원녹지, 방파제 공원, 유람선 기지, 이벤트광장, 국제 교류센터, 쇼핑센터, 해양식품

레스토랑을 입주시켜 어항의 워터프론트 활용을 극대화한다.

넷째는 해양관광 및 위락시설이다. 어항과 관련된 장소에 시가지 및 해상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를 비롯하여, 해양수족관 및 컨벤션센터를 겸한 관광용 호텔, 그리고 수상스포츠를 위한 마리나 시설을 두루 갖춘 복합관광단지를 건설한다.

마지막으로 복합도시형 어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종합어항관리센터를 배치해야 한다. 여기서는 어선어항을 중심으로 한 운영시스템과 물류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통괄하고, 어선수리 및 해체 등 어항의 종합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곳이다. 동시에 어항 전체의 쓰레기, 폐유 등을 관리하여 어항 전반의 환경관리를 담당하여야 한다.

광역어촌 정주권형 어항개발

광역어촌 정주권형 어항개발 모형은 연안에 인접해 있는 소규모의 어촌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각 어촌별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생산 및 생활 기본 시설들을 정비하고, 이것을 기능별로 네트워크화함으로써 상호보완성을 높여

광역 생활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개발모형이다. 이 개발모형은 연안촌락형이나 도서벽지형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개발모형이라 할 수 있다. 이 모형에 있어서 권역은 자원관리어업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장이나 어업권을 매체로 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이와같은 형태의 개발은 결과적으로 연안수역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가능케 한다.

광역어촌 정주권형 개발을 위해서는 각각의 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의 배치가 필요하다.

첫째는 광역어촌 정주권형 어항개발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작업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권역내 어촌지역을 묶을 수 있는 역내 네트워크 시설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때 네트워크의 수단으로서의 도로교통, 해상교통외에 케이블TV, LAN(지역종합정보망) 등과 같은 최신의 통신기술이 필요하다.

둘째로 광역어촌 정주권형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권역내 공동생산시설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광역어촌 정주권내 지역의 상당수 주민들의 어업과 농업을 병행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농수산물을 동시에

가공할 수 있는 농수산가공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로 광역어촌 정주권 개발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권역내 생활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즉 광역어촌 정주권내 어촌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와 교육서비스, 그리고 의료서비스를 권역내에서 적절히 공급할 수 있도록 중심지에 필요한 행정기관,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넷째로 광역어촌 정주권형 개발을 위해서는 관광시설의 유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본집약적이고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대규모 해양스포츠 시설보다는 가족형 해수욕장, 해양학습장, 어촌형 민속촌 등과 같은 전원형 관광시설을 배치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또한 어촌주민의 수익증대를 위한 특산물 판매센터나 소규모 수산물 식당가를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휴식·휴양공간 제공을 위한 어항개발

어항 활성화를 위한 개발

여러 개발형태중 관광휴양시

설 소요를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고 국민의 여가의식에 걸맞는 해양관광 레크레이션시설을 정비하여 어항의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해 볼 수 있다.

앞으로는 여행의 양상이 바뀌어 연안여객선과 관광선을 이용한 바다여행이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여객선(유람선)터미널 및 객선의 건조와 수리시설을 정비하여 관광어항으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어항을 중심으로 한 해안선 일대에는 관광객의 체제와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숙박시설, 쇼핑센터, 유원지, 클럽하우스 등)을 정비하되 지역 전체가 통일된 이미지가 되도록 조성한다. 또한 어항 배면과 주변에는 해양박물관, 수족관을 주축으로 조망공원, 해중전망대 등을 적절히 배치한다.

이와함께 해양레크레이션 시설의 기지화 어항을 중심으로 한 해안선 일대는 해양레크레이션 기지로서 가장 양호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여러 형태의 시설을 유치, 조성하는 한편 어항시설에 부가하여 해양스포츠시설을 정비하고, 해양 이벤트를 적극 발굴하여 수시로 개최한다. 또 어항 전면에 순항 레저시설 및 낚시터 시설 등을 유치 조

성한다.

어항과 레크레이션과의 연계

우리나라 해안에 발달한 어항어촌지역은 자연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어항시설 및 수산업 시설을 비롯하여 어촌 고유의 풍물과 전통 민속 등 많은 관광자원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이미지를 최대한 살려 관광 휴양 시설을 정비하면 관광명소로 크게 부각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해안지역의 기암절벽과 단애, 어항과 어촌 풍경, 해변의 수림지대와 잔디밭, 백사장, 푸른바다 그리고 많은 어패류와 해산물, 어류양식장, 어구 및 어촌 민속과 가무 등이 모두 관광대상으로서 매력을 지닌 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다.

또 국민소득의 증가 및 점증하는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라 해양레저수요가 급증하므로 어항의 재개발과 동시에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의 정비가 요구된다. 어항을 중심으로 한 해안일대는 해양레크레이션의 기지로서 가장 양호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해양레크레이션 시설은 단지 그 자체의 목적을 위해서 건설되는 것보다 어항건설과 관련하여 부대적으로 이

용수역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어항을 기점으로 한 해양레크레이션 시설의 개발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문제점은 어항개발에 따른 관련 당사자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어떠한 기능을 도입할 것인지 등에 관해 장래성과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 ①자연환경적인 영향(파랑, 태풍)
- ②어항시설과 공유할 수 있는 충분한 수면적의 확보
- ③개발에 따른 토지취득 및 어업권 보상문제
- ④각종 행정규제
- ⑤해안·해양 개발에 따른 국민의 인식부족
- ⑥조건을 갖춘 관광휴양 적지의 부족
- ⑦해양위락시설 이용시간의 단기간
- ⑧어업분야와의 이용간섭에 따른 분쟁소지

휴식·휴양공간 제공을 위한 어항개발

향후 어항개발의 방향은 단순히 어항 그 자체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광의의 인식을 가지고 어항시설을 갖춘 다목적 어항으로 종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어

항과 해양관광 위락시설이 접목된 개발모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를 들 수 있다.

①지역활성화형 : 마리나, 어패류 등의 양식장, 해안 등에 산재한 지방문화를 재생하여 독특한 관광문화지역을 조성함으로써 해당지역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형태로서 어항의 쇠퇴를 막고 지역재생을 기도한다.

②집단시설지구형 : 관광과 쇼핑, 이벤트를 위한 집단시설 지구를 조성하는 형태로서 지구내에는 전천후형 이벤트 지대, 수족관, 풀장, 각종 스포츠 시설, 수산연구소 등의 시설을 유치한다.

③해양목장형(관광휴양지 조성형 워터프런트 개발) : 해양 목장을 주축으로 하여 요트하버, 해수욕장, 다양한 마린 스포츠 시설을 구비하여 어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형태이다.

해양레크레이션과 조화를 이룬 어항어촌 형태

해양성 레크레이션의 수요가 높아져 어항을 이용하는 유어선 등이 증가함에 따라 어선과 어항의 이용상에 상호마찰이 발생하는 등 어업생산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가 점차적으로 많아질 것

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호 마찰을 해소하고, 어항이용의 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어항에서의 어업생산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어선 등을 분리 수용할 수 있는 전용시설의 정비가 요구되어 진다.

결론

어항은 어장과 어촌 지역을 연결하는 결절지로서 어항의 개발은 해당지역의 수산업 발전 및 어촌개발 모두에게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어항은 당해지역의 수산업 개발 잠재력 및 어촌 지역 여건을 동시에 고려한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다기능 어항의 개발정비가 매우 중요하기는 하나 이것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항 개발외의 타수산정책(생산정책)은 물론 유통가공정책, 관광 및 기타 지역개발정책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로서는 현재 지정항 중에서도 완공되지 않은 어항이 절반이상이며, 지정되지 않은 어항 중에서도 지정개발해야 할 어항도 상당 수

있다. 앞으로 어항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장단기 계획이 훌륭히 수립되어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하더라도 투자가 뒤따르지 않으면 결국 계획으로 그칠 수 밖에 없다.

어항종합개발은 시대적인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개념으로서 아직 정형화된 이론이나 개발기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새로운 어촌 종합개발기법의 모색 및 적용을 위해 대상지역은 수산업외에 유통가공 및 어촌 관광 부분까지 개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어야 하고, 개발대상 어항도 다기능을 가지는 어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